

# 신앙체제의 유형과 형성방법에 관한 고찰

朱賢哲\*

## 目次

- |                |                |
|----------------|----------------|
| I. 序論          | 2. 구도형(求道型)    |
| II. 信의 정의      | 3. 개벽형(開闢型)    |
| 1. 信의 字意       | IV. 신앙체제의 형성방법 |
| 2. 信念과 信仰의 차이점 | 1. 내적 형성방법     |
| 3. 대순사상의 信의 의미 | 2. 외적 형성방법     |
| III. 신앙체제의 유형  | V. 結論          |
| 1. 청원형(請願型)    |                |

## I. 서론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인간은 자신이 생활하는 집이 안전하다는 생각과 믿음이 없다면 항상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집이 안전하다고 시시각각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확신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실은 자기가 사는 집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인간의 불확실한 믿음일 지라도 믿음은 인간에게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준다. 믿음(信)은 인간관계에 있어 그 바탕이 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 문학 박사

는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이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믿음은 인간사회의 모든 관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믿음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면서 그 구체적인 표현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거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격언처럼,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별히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자신이 상대방과 한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용을 잃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信**이란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의미한다.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곧 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양심(良心)을 속이지 않는 것이며,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無自欺)이다. 양심(良心)과 무자기(無自欺)의 마음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信**은 양심과 무자기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도 **信**은 수도(修道)의 3요체로서 아주 중시되는 실천덕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信**의 자의(字意), 신념(信念)과 신앙(信仰)의 의미 차이 그리고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信**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III장에서는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앙체제의 유형, IV장에서는 신앙체제의 형성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 II. 信의 정의

### 1. 信의 字意

『설문(說文)』에 “**信**은 성실(誠實)함이니, 사람(人)과 말(言)의 회의(會意)자(字)이다”<sup>1)</sup>라고 하여, 인간이 말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주희(朱熹)는 **信**이란 말과 행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친구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信**은 전통적으로 친구사이의 바른 도(道)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논어』에 “벗과 사

1) 『說文』, 三篇上, “信誠也 從人言”

꿈에 신의(信義)가 없는가?”<sup>2)</sup>라 하였고, 『맹자』에 “후직(后稷)이 백성에게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을 가르쳐서 오곡을 심고 김매게 하였는데, 오곡이 성숙하면서 인민(人民)이 잘 길러졌다. 사람이 떳떳한 도(道)를 지녔음에 음식이 풍족하고 옷이 넉넉하여,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바른 삶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예절을 몰라 짐승과 같아지기 때문에, 성인(聖人)이 이것을 근심하셔서, 설(契)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사도(司徒)의 벼슬을 명하고 백성들에게 인륜(人倫)을 가르치니, 그것이 부자유친(父子有親)하며, 군신유의(君臣有義)하며, 부부유별(夫婦有別)하며, 장유유서(長幼有序)하며, 붕우유신(朋友有信)이니라”<sup>3)</sup>라고 하였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도(道)인 오륜(五倫) 가운데 하나로서 붕우유신(朋友有信) 즉, 친구간에는 신의(信義)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중용』에 “천하에 통달한 도(道)가 다섯이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셋이니,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와 부부(夫婦)와 곤제(昆弟)와 붕우(朋友)를 사귀는 다섯 가지는 천하에 통달한 도(道)이다”<sup>4)</sup>라고 하여, 모든 인간 사회의 보편적 인간관계 가운데 친구 사이의 관계를 오달도(五達道)의 하나로 중시하고, 그 사이에서는 신의(信義)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신의(信義)는 친구 사이에서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 신의(信義)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며, 그 중에서도 치자(治者)의 신의(信義)는 더욱 중요하다.<sup>5)</sup> 국민은 국가와 통치자를 믿고 따르며, 통치자가 국민적 합의와 약속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국민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국가의 기반이 다져져 대외적으로는 공신력(公信力)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통치자가 신의(信義)가 없다면 국민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나갈 것이고, 대외의 공신력은 땅에 추락할 것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신의(信義)가 없다면 극단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

2) 『論語』, 「學而」, “與朋友交而不信乎”

3) 『孟子』, 「滕文公上」

“后稷 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熟而民人育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 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4) 『中庸』, 제 20장

“天下之達道 五 所以行之者 三曰 君臣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5) 『儒教大事典』 (서울: 박영사, 1990) 참조

다. 이렇게 신(信)은 인간·사회·국가적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2. 信念과 信仰의 차이점

믿음은 신념과 신앙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념(信念, belief)이란 자신이 가진 견해·사상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며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그 견해·사상이 확실한 기초를 갖지 않는 독단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 기초 지워진 것일 수도 있다. 전자(前者)는 주관주의에 빠져 있어 이것에 의거한 신념은 옳바르다고 할 수 없는데 반해, 후자(後者)는 사람들의 생활을 의미있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신념은 신앙과 동일하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신앙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말한다.<sup>6)</sup> 신앙(信仰, faith)이란 종교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비종교적(非宗教的)인 확신·신념·신뢰 등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특히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신(神)의 존재를 확신할 뿐 아니라, 외경(畏敬) 등의 감정을 갖고, 나아가 그들에 수반되는 의식,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단순한 의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단(敎團)에 소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단의 일원으로서 의식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유대를 갖고 규율에 복종하고 책임을 수행하며, 상호간에 신뢰하고 원조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이 유지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의 중핵(中核)인 신(神)은 교단의 연대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신앙은 이처럼, 교단과 신자(信者)를 결합하는 것이다.<sup>7)</sup> 이렇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식을 갖는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의 존재가 객관적인 사실임을 확신하고 무조건 믿는 것을 뜻한다. 믿음의 절대적 객관성이 종교적 믿음과, 신앙과 다른 종류의 믿음인 지각적 믿음, 과학적 믿음, 철학적 믿음 등과 구별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다. 이러한 절대성과 무조건성이 신앙의 본질이며, 이러한 점에서 신앙은 보통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또 이런 점에서 종교적 진리는 비종교적 진리와 전혀 비교조차도 될 수 없이 그 성질이 다르다.

6) 임석진 外, 「철학사전」(서울: 도서출판 靑史, 1987), 405쪽 참조

7) 임석진 外, 「철학사전」, 407쪽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신념(信念)과 신앙(信仰)은 뚜렷이 구별된다. 신념이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에 불과하다. 신념은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신념을 가지고 생활한다. 신념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주고 기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러나 신념은 반드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만 실패하여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이것이 신념이 내포하고 있는 단점이며, 신앙과의 차이점이다. 신앙이란 상제에 대한 믿음이다. 상제의 말씀과 행적은 상제 자신의 확신이자 의지이기 때문에, 상제에 대한 일체의 믿음을 일컬어 신앙이라고 한다. 따라서 상제의 진리에 따라 생활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신앙심(信仰心)이다. 올바른 신앙심을 갖고 있는 자는 영생(永生)을 얻고자 하는데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성공이 보장될 따름이다. 상제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념보다 더 위대한 상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 3. 대순사상의信的 의미

대순사상에서 信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는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信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信이다. 『대순지침』에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sup>8)</sup>고 했다. 인간이 어떤 일을 사실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목표의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한 가지 대상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그 대상을 파악하게 되고, 그 대상의 실체를 완전히 알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확신을 가지려면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깨달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곧 상제의 진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상제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상제를 향한 신앙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

8) 『대순지침』, 53쪽

다”<sup>9)</sup>라는 내용이 있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는 것은 불충(不忠)이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 것은 불효(不孝)다. 효도(孝道)라는 것은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면 이것이 효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忠誠)하면 충신이 되는 것이다. 이 충성과 효도를 다 잘하면 마침내는 자신의 몸을 세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효도하고서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고 효도하고서 예의가 없고 지혜가 없고 신용이 없는 자는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식이 불효(不孝)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백성이 불충(不忠)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래서 난신적자(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가 된다.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수도자(修道者)가 상제에 대한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도(道)를 어지럽히는 난법난도자(亂法亂道子)가 되는 것이다.<sup>10)</sup>

대순사상에서는 믿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마음을 정(定)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偏僻)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變)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精誠)하여 기대(企待)한 바 목적(目的)에 도달(到達)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sup>11)</sup>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이란 한치의 오차도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믿이란 한 순간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믿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나를 둘이라 하지 않는다’, ‘저것을 이것이라 하지 않는다’, ‘앞을 뒤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현실세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셋을 셋이라 않고’라는 표현은 인간의 한계성(限界性)을 지적한 말이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진리라고 믿고 있

9) 『대순지침』, 53쪽

10) 『대순지침』, 53쪽 참조

11) 『대순진리회요람』, 16-7쪽

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 그것에 대해 인간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이다. 『전경』에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 종자를 남겨 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sup>12)</sup>라고 하였다. 농부는 토지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부가 토지를 믿듯이, 사람들은 상제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어야 하며, 믿기만 하면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결실이란 궁극적으로 영생(永生)을 의미한다.

상제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경』에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sup>13)</sup>라고 하였다. 참된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다. 인간이 상제를 믿을 때 상제는 비로소 인간을 믿게 된다. 인간이 상제를 믿지 않는데 상제께서 그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곧 믿음에 의해 인간은 상제와 연결될 수 있다. 상제를 믿는 것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며,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다고 믿음만으로 영생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상제를 믿는다는 것은 상제의 의지를 기꺼이 따르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 다음에 상제의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믿음과 믿음에 대한 실천이 수행된 후에 진정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결국 믿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상제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요소인 것이다.

인간은 신앙적 존재(산물)이며, 신앙에 의한 영생의 희망적 존재이다. 인간이 신앙적 존재라는 근거는 『전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 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sup>14)</sup>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인간의 탄생이 선령신의 지극한 공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공덕에 대한 판단은 선령신보다 상위의 신명에 의해

12) 『전경』, 교법 2장 45절

13) 『전경』, 교법 1장 5절

14) 『전경』, 교법 2장 36절

이루어지고 상제의 명(命)에 의해 인간의 탄생이 결정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곧 선령신은 자손을 얻기 위해 상제를 신앙하며, 그 자손이 선령신께 제사지내고 자신을 탄생케 해주신 절대자이신 상제를 신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신앙적 존재 또는 신앙적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상제께서는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어요. 남이 잘 살 때에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니라”<sup>15)</sup>라고 말씀하셨듯이, 상제와 참된 믿음으로써 연결된 자는 영원한 복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상제를 신앙함으로써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영생의 희망적인 존재인 것이다.

### Ⅲ. 신앙체제의 유형

신앙(信仰)이라는 것은 저명한 종교가들이 말하고 있듯이, 너무 깊고 멀어서 알기 어려운 것이며, 신앙체제(信仰體制)는 그 범위가 또 매우 넓어서 다 같이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사람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점은 물론 특정의 종교체계가 갖는 성격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같은 종교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sup>16)</sup> 상식적으로 신앙이란 인간의 인격구조 내부에 형성되어 있다. 즉,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 당사자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며, 그 행동의 성격 형성에 커다란 힘이 된다. 그러므로 인격구조 중에 신앙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신앙은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인 ‘심적(心的) 자세’이다. 단순히 심적 자세일 뿐 아니라 이것은 중층적(重層的)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같은 종교적인 심적 자세라 할지라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신앙의 기초적 골격의 구실을 하는 부분이 있다. 또 비교적 인격구조의 표면에서 개개의 구체적인 종교적 행동의 주형적(鑄型的) 구실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

15) 「전경」, 교법 1장 6절

16) 岸本英夫(박인재 옮김), 「종교학」(서울: 김영사, 1994), 57쪽



와 같이 둘로 나누어 생각할 경우에 깊숙한 안쪽의 기초적 부분을 개인적인 종교적 태도라 부르고 표면에 가까운 행동의 주형적 구실을 하는 것을 종교적 행동 원형이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신앙체제라고 하는 것이다.<sup>17)</sup> 신앙체제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지만, 여기서는 안본영부(岸本英夫)와 윤이흠(尹以欽)이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신앙체제(信仰體制)의 유형을 전자(前者)는 청원태(請願態)·희구태(希求態)·제주태(諦住態), 후자(後者)는 기복형(祈福型)·구도형(求道型)·개벽형(開闢型)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양자(兩者)의 분류방법은 용어의 표현이 다를 뿐, 대체로 그 용어의 의미나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양자의 용어를 차용하여 청원형(請願型)·구도형(求道型)·개벽형(開闢型)으로 분류하였다.

## 1. 청원형(請願型)

신앙체제의 유형 중 청원형(請願型)은 일상적인 인간문제가 중심이 된다. 그 주요 관심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당면 문제이다. 이러한 일상적 문제 그 자체에는 특별한 종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 해결 방법은 대개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하므로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신앙체제의 유형을 청원형(請願型)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말라죽어 가고 있다면, 이 경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당면한 인간문제이다. 그래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기우제(祈雨祭)란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를 비는 제사이다. 이러한 비에 대한 관심은 단군신화의 환웅이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하강했다는 기록에서부터 보인다. 기우제는 삼국·고려·조선시대에 걸쳐 백성과 국왕이 참여하는 중요한 국가행사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작성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기우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

17) 앞의 책, 54-5쪽 참조

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그러면 상제께서 비를 내리게 하여 가뭄을 해결했던 일과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와 관련된 『전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계묘년 가을에 가뭄이 동곡(銅谷)에 계속되었도다. 김 성천(金成天)은 동곡에서 밭을 부쳐 업으로 삼으니라. 그 나물 밭에 가뭄 때문에 뜨물이 생겨 채소가 전멸케 되었는지라. 상제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죽을 사람에게 기운을 붙여 회생케 하는 것이 이 채소를 소생케 하는 것과 같으니라」 하시고 곧 비를 내리게 하셨도다. 그 후에 상제께서 출타하셨다가 얼마 후에 돌아오셔서 자현에게 「김 성천의 나물 밭이 어떻게 되었느냐」 고 물으시니라. 자현이 「지난 비로 소생되어 이 부근에서는 제일 잘 되었나이다」 고 대답하였도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아서 병든 자와 죽는 자에게 기운만 붙이면 일어나니라」 고 말씀하셨도다<sup>19)</sup>, 또 “四월에 들어 심한 가뭄으로 보리가 타니 농민들의 근심이 극심하여지는도다. 종도들도 굶을 걱정을 서로 나누니 상제께서 「전일에 너희들이 보리를 없애버림이 옳다 하고 이제 다시 보리 흉년을 걱정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농담 한 마디라도 도수에 박혀 천지에 올려 퍼지니 이후부터 범사에 실없이 말하지 말라」 고 꾸짖으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전주 용두리 고개 김 낙범에게 들러 거친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을 보고 「빈민의 음식이 이러하니라」 고 하시면서 다 잡수셨도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큰비가 내리니 말라죽던 보리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도다.”<sup>20)</sup>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뭄을 해결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신(神)에게 제(祭)를 지냈던 전통적인 방법인 기우제(祈雨祭)는 상제의 출현으로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대순사상에서는 직접 상제께서 우주의 모든 자연현상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상제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기우제(祈雨祭)가 막연한 신(神)에 대한 외경(畏敬)과 신앙(信仰)이었다면, 상제의 출현은 하나님인 곧 상제라는 구체적인 신앙(信仰)을 인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4권 (서울: 웅진출판, 1997), 501-2 참조

19) 『전경』, 행록 2장 21절

20) 『전경』, 행록 4장 15절

에게 제시했으며,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계속된 가뭄으로 곡식이 타 죽게 되었을 때, 김允근(金允根)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상제께 간곡한 마음으로 전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 갑자기 뇌성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는 '선생이 곧 만인을 살리는 상제'라고 고백하였다.<sup>21)</sup>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상제께서는 인류를 구제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신의 권능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곧 상제께서는 인류에게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다.

다음은 신앙체제인 청원형(請願型)의 특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종교사상과 대순사상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이 신앙체제의 유형을 기복형(祈福型)이라 표현하고 그 특성을 밝힌 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복형(祈福型)은 그 중점적 관심이 질병이나 일반적 재앙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유체계에서는 인간의 삶의 이상이 바로 현세적인 것에 조건 지워져 있다. 현세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삶은 바로 인간의 이상적 삶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복행위는 비록 내세의 일을 빈다 하는 경우에도 내세의 이상적 조건을 현세의 조건에서 유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복사상은 제 삼의 기준이나 관점에서부터 인간과 그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 삶의 조건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그 중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 현세적 조건의 결여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려는 것이 기복(祈福)이며 주술 행위이다. 이러한 기복사상(祈福思想)의 현세적 관심을 생존 동기(survival motif)라고 한다. 주술적(呪術的) 기복행위(祈福行爲)는 삶의 현실적 조건의 결여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그 관심의 초점을 이루고, 행위자의 윤리적 내지 내면적 덕성의 함양은 그 관심의 밖에 있다. 그러므로 기복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기적(利己的)이며 합목적적(合目的的)이다. 기복 행위는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누가 하느냐는 관심의 밖에 있다. 기복 행위(祈福行爲)의 목적이 공동사회의 이익에 관계될 때 공동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기복(祈福)이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단위 공동사회의 범주 안에

21) 『전경』, 행록 4장 27절 참조

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 성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 선행되는 자아의 완성이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 곧 윤리적 각성은 기복 행위의 근본적 관심의 밖에 있다.<sup>22)</sup>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최고신(最高神)이자 절대자(絕對者)이신 상제와의 관계를 벗어난 신앙체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순사상의 기복적 신앙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술적인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단지 상제께서 하나님으로서 천지공사를 하실 때, 종이에 글자를 써서 불에 태우는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당시 상제를 따르던 종도들로부터 현재에까지 이르는 도인(道人)들은 자신이나 집단의 복(福)을 비는 기복행위로서 주술적인 방법을 행하지는 않는다. 물론 치성(致誠)을 드리는 동안에 잠깐동안 상제께 직접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경우가 있을 뿐, 일상적인 문제해결에 있어 기복(祈福)을 위한 의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술이란 주문(呪文)과 점(占)을 일컫는데, 대순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문이 기복 행위를 위한 하나의 도구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구도적(求道的) 수도 방법으로서 더 중요한 기능과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구도형(求道型)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 2. 구도형(求道型)

구도자(求道者)는 전경(典經)이나 교화(教化)를 통해 도(道)를 접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아 상제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는 구도자(求道者)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수도(修道)에 전념한다. 그러나 그는 수도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좌절도 하지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깨닫는다. 그래서 그에게 신앙심(信仰心)이 생겨나, 일상적인 문제보다는 도(道)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신앙체제를 구도형(求道型)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체제에서는 구도자(求道者)의 마음속에 도(道)를 중심으로 한

22) 張秉吉 教授 隱退紀念論叢 刊行委員會, 『韓國宗教의 理解』 (서울: 집문당, 1985), 35-6쪽; 尹以欽, 『韓國宗教研究』 卷1(서울: 집문당, 1991), 27-8쪽 참조

가치체제의 재편성이 일어나게 되어, 청원형(請願型)의 중심문제였던 일상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도(道)에 관한 문제로 그 중심이 전환된다. 청원형의 경우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구도형(求道型)에서는 자신의 행동 자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 구도형(求道型)의 중심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해결이 가능한가 않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마음상태로 당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점으로 문제가 옮겨가는 것이다. 병이 기적으로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병에 걸려 있는 사실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써 그것에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종교적 사고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 새로운 고민을 수반한다. 곧 이상적 가치기준이 인간행동을 재는 척도가 되고, 그 결과 높은 척도에 맞지 않는 현실 속의 자신의 결점과 추악함이 눈에 띄게 된다.<sup>23)</sup>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 등으로 인해 좌절감과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지만, 후회와 반성으로 자신의 결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수도(修道)에 더 매진한다면, 보다 나은 인격 형성과 깊은 도심(道心)을 기대할 수 있다.

구도형(求道型)은 인간 존재의 실존적 제약성에 대한 예리한 각성과 현실적 조건을 넘어선 이상적 자아의 완성을 추구한다는 존재론적 문제에 그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사상체계에서는 현실적 조건과 사상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철저히 인식하게 된다. 이상의 인식은 곧 현실 속에서의 자아의 삶의 자세를 변형시키고 현세적 조건과 삶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하게 하는 힘을 가져다준다. 이렇게 변혁된 삶의 맥락 속에서 우주와 사회와 인간이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념, 이른바 우주관(宇宙觀, cosmos)을 갖게 된다. 고전적 우주관에서 자아와 자연(天體를 포함한), 사회가 동일한 의미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의 존재론적 추구를 그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념 체계에서는 언제나 우주론적 질서 내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병행하고 있다. 진실한 자아를 추구하는 것과 진리를 체득하는 것은 여기에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신행(信行)

23) 岸本英夫(박인재 옮김), 129쪽 참조

이 되는 것이다. 이 신행(信行)은 고전적 형이상학 체계의 산파였으며, 인류 고전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한 모든 고대 문화는 바로 이 구도형의 신념체계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구도사상(求道思想)은 인간 이상의 실현과 진리의 체득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기복사상(祈福思想)과 같이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목표가 아니라 전인적(全人的) 목표이고 전인적 이상(理想) 그 자체이다. 전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수련과 극기 그리고 고행이 요구된다. 전인적 이상을 추구하는 길이며 진리를 실천하는 과정이 고행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전인적 이상과 진리의 실천이라는 구원한 목표는 그 실천 과정 자체가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그 목표와 실천 과정은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고행(苦行)을 하고 있는 구도자(求道者)에게서 진실한 자아와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의 관심의 밖에 있다. 세속적 일들과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관심은 구도자(求道者)의 자기 훈련의 과정에서 관심의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sup>24)</sup>

대순사상에서도 구도자(求道者)의 목표인 도통(道通)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修道)는 필수적이다. 대순사상은 수도자(修道者)의 마음가짐과 수도 방법 그리고 도통(道通)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무자기(無自欺)를 근본(根本)으로 하여 인간(人間) 본래(本來)의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본성(本性)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鍊磨)하여 자기 자신의 기질(氣質)을 단련(鍛鍊)하여 대순진리(大巡眞理)의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을 체인체득(體認體得)하기 위하여 힘써 닦아 정성(精誠)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도가 곧 나(我卽道)요 내가 곧 도(道卽我)라는 경지를 바르게 깨달아 환하게 도(道)에 통하게 되면 삼계(三界)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우주 전체의 이치를 온갖 정성(精誠)을 다하여 깨달음으로써 어떤 것이든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영통(靈通) 또는 도통(道通)이라고 한다.<sup>25)</sup> 수도(修道)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이기

24) 尹以欽, 같은 책, 27-8쪽

25) 「대순진리회요람」, 9쪽 참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도통을 받을 수 없다.<sup>26)</sup> 수도(修道)의 목적(目的)은 도통이다. 도통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修道)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경』에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sup>27)</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도(道)를 닦는 자는 곧 상제를 신앙(信仰)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복록(福祿)을 얻어 불로불사(不老不死)하여 영원한 선경(仙境)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sup>28)</sup> 이렇게 수도(修道)는 도통뿐만 아니라 영생(永生)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통(道通)은 선후(先後)의 차등(差等)이 없으며, 어느 누가 물품을 수수(授受)하듯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도통(道通)은 오직 도인(道人)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타인(他人)이나 타의(他意)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sup>29)</sup> 도통은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sup>30)</sup> 그래서 대순사상에서는 구체적이고 올바른 수도(修道)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될 신앙체제의 형성방법의 장(章)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한편 대순사상에서 수도자(修道者)의 수도 과정의 단계 즉, 도통(道通)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함축적(含蓄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심우도(尋牛圖)이다. 심우도는 심심유오(深深有悟)·봉득신교(奉得神敎)·면이수지(勉而修之)·성지우성(誠之又誠)·도통진경(道通眞境)·도지통명(道之通明)의 단계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심심유오(深深有悟)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구도자(求道者)가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해 심찰(深察)하는 단계이다. 두번째는 봉득신교(奉得神敎)인데, 심심유오(深深有悟)의 단계에서 가졌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하는 단계이다. 깊은 명상에 빠져보기도 하고, 성현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던 중 삼생의 인연에 의해 구천상제의 도(道)를 받들어 그 도를 얻는 단계이다. 세번째는 면이수지(勉而修之)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구천상제와 도주께서 짜놓으신

26) 『대순지침』, 37쪽 참조

27) 『전경』, 교법 2장 22절

28) 『전경』, 권지 1장 11절 참조

29) 『대순지침』, 37-8쪽 참조

30) 『대순지침』, 38쪽 참조

진법(眞法)에 의하여 힘써 도를 닦아 나가는 단계이다. 네번째는 성지우성(誠之又誠)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수도(修道)를 함에 있어서 항상 정성(精誠)의 부족함을 반성하여 구천상제께 심고(心告)하면서 정성에 정성을 다하는 단계이다. 다섯번째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단계이다. 정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심신이 상쾌해지면서 마음의 눈이 저절로 열려서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와 과거(過去)·현재(現在)·미래(未來)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단계이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도지통명(道之通明)의 단계이다. 천·지·인 삼계(三界)가 모두 도통(道通)하여 인간은 지상신선(至上神仙)이 되고, 천지는仙境세계(仙境世界)가 되는 단계이다.

### 3. 개벽형(開闢型)

개벽형(開闢型)은 역사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그때가 올 것을 준비해야 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된다. 황금시대가 오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문제들과 개인 생존의 어려움들이 모두 일거에 해결되며, 따라서 황금시대의 조건은 현존적 인간 및 사회 조건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상 사회가 도래한다고 믿게 된다. 현 사회 조건과 황금시대의 이상 사회 조건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새시대의 도래는 극적이며 새시대의 개벽(開闢)은 더 장엄하고 그 충격은 더 크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개벽사상(開闢思想)은 사회의 본질적 변혁을 추구하는 개혁 의지와 이상 사회에 대한 집단적 꿈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개혁사상 체계에서 주술적 생존 동기나 구도적 고행주의는 한갓 무기력하고 쓸모 없는 덕목(德目)으로 여겨지고, 급진적 개혁사상의 중심은 새 시대, 새 사회에 대한 비전에 그 관심이 집중되게 마련이다. 개인의 존재 의미와 개인 생활의 꿈은 긴급하고 다급한 사회 변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관심의 밖으로 밀려 나가거나 새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승화되어 버린다. 개벽사상(開闢思想)은 한마디로 난세(亂世)의 철학이며 난세를 준비하는 혁명사상이다. 이상사회의 상징인 황금시대가 인간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전적으로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 여겨지며,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 전체가 전혀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경우와, 인간이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었던 과거



의 역사적 황금시대를 미래에 다시 재현해 보려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이든 황금시대를 대망하는 개혁사상(開闢思想)은 시간적으로는 역사 의식을 동반하고 공간적으로는 민족이나 인류 사회에 대한 공동 운명체 의식을 동반한다.<sup>31)</sup>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순사상의 개혁사상과 원시반본사상(原始返本思想)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1) 개혁사상

개혁은 천지개벽(天地開闢)의 준말이다. 대순사상의 개혁사상은 현실의 상극적(相克的) 요소를 극복하고 바로 잡아 상생(相生)의 세계로 만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상 곧 현실세계에서 이상세계인 선경(仙境)의 세계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경』은 현실상황을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sup>32)</sup>라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선천의 현실은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가 상극으로 오염되어 원한이 쌓임으로써 참혹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극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계 전체가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개혁(開闢)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삼계가 개혁되지 않은 것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의 모든 일을 지배했기 때문에 원한이 세상에 쌓였다. 이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발생하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선천의 현실이 삼계께서 이 세상에 탄강하시게 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삼계가 혼란하여 도(道)의 근원이 끊기게 되자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佛)과 보살(菩薩)들의 간청으로 삼계를 구제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시어 이 땅에 강세(降世)하신 것이다.<sup>34)</sup> 강세 후 삼계께서는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

31) 尹以欽, 같은 책, 29-30쪽 참조

32) 『전경』, 공사 1장 3절

33) 『전경』, 예시 8절 참조

34)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쓰기도 하셨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5)</sup> 이러한 공사를 일컬어 개혁공사(開關公事)라 한다. 개혁공사는 천·지·인 삼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계공사(三界公事)라고도 한다. 개혁이란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든다’는 창조(創造)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의 성질을 올바르게 고친다’는 개조(改造), 그리고 ‘서로를 고르게 하여 통하게 한다’는 조화(調化)의 3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다음 내용을 보면 더욱 확고해진다. 상제께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36)</sup>고 말씀하셨다. 개혁을 위해 ‘상제께서 지어 만드는 것’은 창조를,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는 것’은 개조를, 삼계를 원한이 없이 고르게 하여 서로 통하게 한다는 것에서 조화를 의미한다. 이 삼계공사는 상제께서 직접 천·지·인 삼계를 개혁하는 것이고, 이 개혁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모방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삼계공사 즉, 개혁공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유례(類例)를 찾아볼 수가 없다. 개혁공사란 대순사상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삼계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상극적 요소가 없는 상생의 세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쌓인 원한을 풀어야만 가능하다. 해원(解冤)은 상극의 세계에서 상생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열쇠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원한을 풀 수 있는가? 이 문제의 해답을 『전경』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전경』에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35) 『전경』, 예시 7절

36) 『전경』, 공사 1장 2절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 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고 하셨도다<sup>37)</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해원(解冤)은 역사상 원(冤)의 시초로 간주되는 단주(丹朱)의 원(冤)을 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한이 매듭이 풀리듯이 하나씩 풀릴 것이다. 삼계가 해원(解冤)이 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의 세계가 오게 된다. 해원은 상극(相克)에서 상생(相生), 선천(先天)에서 후천(後天), 고통에서 선경(仙境)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가교역할을 한다.

## 2) 원시반본사상

원시(原始)는 ‘근원과 시작’을 의미하고, 반본(返本)은 ‘근본으로 돌아옴’의 의미이다. 그래서 원시반본(原始返本)이란 근원인 본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원인 본래의 상태란 인간적 측면에서는 청정무구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며, 역사적으로는 원한이 없는 상생의 시대로서 인류의 원한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단주(丹朱)이전의 요순시대(堯舜時代)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sup>38)</sup>는 상제의 말씀이 그 증거가 된다. 요순시대는 태평시대로서 이상적인 시대였다. 『전경』에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을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증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37) 『전경』, 공사 3장 4절

38) 『전경』, 교운 1장 46절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sup>39)</sup>고 하였다. 여기서 성(聖)과 웅(雄)을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하였던 시대가 요순시대임을 암시하고 있다. 마음을 성인(聖人)과 같이 하는 것이 성(聖)이고, 일을 영웅과 같이 하는 것이 웅(雄)이기 때문에 성(聖)과 웅(雄)을 겸하라고 한 것이다.<sup>40)</sup> 그러면 요(堯)와 순(舜)에 대해서 『상서(尙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상서』는 요(堯)의 인격과 공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요(堯)는 경건하고 영민하고 문아(文雅)하고 사려(思慮)가 있고 온화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지극히 공순하고 예양(禮讓)을 갖추어, 그 인품의 고명함이 사방에 미치고 그의 정성은 천지를 감동시켰다. 또 그의 공덕은 자신의 원숙하고 고상한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먼저 9족(九族)을 감화시키고 그 9족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을 교화했으며, 나아가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하였다.”<sup>41)</sup> 이것은 요(堯)임금이 지덕을 갖춘 인격자이며, 인간관계에 있어 친화력과 감화력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 그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룬 치적은 유가(儒家)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다.

요(堯)의 공적을 살펴보면, 그가 자연의 변화에 맞게 인간의 법도를 설정했다는 데 있다. 그는 인간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면서도 농경에 가장 필수적인 기후의 변화를 관찰하여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그는 신하로 하여금 정성을 다하여 하늘의 운행과 땅의 형세를 살피게 하고 연월일시(年月日時)의 운행과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여 백성들에게 농경의 시기를 알리게 했다. 또 동서남북(東西南北)을 가려서 집을 짓고 춘하추동(春夏秋冬)에 따른 기후 변화에 맞추어 의식주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가르쳤다. 1년을 366일로 정하되 윤월을 두어 남는 일수를 보충하였고, 많은 관서(官署)를 두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백성들의 삶은 만족스럽고 풍요로웠다.<sup>42)</sup> 이렇게 요(堯)

39) 「전경」, 교법 3장 26절

40) 「전경」, 교운 1장 23·49절 참조

41) 「尙書」, 「虞書·堯典」

“帝堯，欽明文思安安，允恭克讓，光被四表，格于上下，克明後德，以親九族，九族既睦，平章百姓，百姓詔明，協和萬邦，黎民於變時雍”

는 인격의 감화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질서를 구축하고 자연 환경의 이해를 통한 생활 터전을 마련케 하며, 계절과 기후에 맞춘 농사법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에 노력했다. 그러나 요(堯)의 최대 고민은 홍수를 막는 일이었다. 홍수의 피해가 극심하여 민생이 위협받는 사태에 직면하자 요(堯)는 우(禹)의 부친인 곤에게 명하여 9년 동안이나 치수사업(治水事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 치수사업은 실패로 돌아가 곤이 처형되었다고 하는데, 실패의 원인은 산을 허물어 물길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독을 쌓아 막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 후 곤의 아들 우(禹)에 의해 다스려졌다. 이렇게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요(堯)에게 있어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sup>43)</sup>

요(堯)는 인재를 등용할 때 아주 신중했다. 특히 그는 천하 대권마저도 아들인 단주(丹朱)가 아닌 순(舜)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각처에서 대권의 적임자를 추천 받아 그 중에 천거한 사람이 순(舜)이다. 순(舜)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요(堯)는 순(舜)이 대권을 담당하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맡겨서 시험해 보았다. 요(堯)가 자기의 두 딸인 아황(娥黃)과 여영(女英)을 순(舜)에게 주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나가는지를 시험해 보기도 하였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린다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요(堯)는 순(舜)을 등용하여 20년간 자신을 보좌하게 한 후, 8년 동안 순(舜)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제왕의 업무를 보게 하였다. 그러므로 순(舜)이 제왕의 훈련을 쌓은 기간은 28년간이나 된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시험을 거친 후에 요(堯)가 죽자 순(舜)은 제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다.<sup>44)</sup> 그러나 순(舜)이 요(堯)가 죽자 곧 바로 제위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다시 천하 만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를 피했다가 단주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선택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제위에 올랐다.<sup>45)</sup>

42)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43) 앞의 책, 같은 곳; 김충열, 『중국철학사 1』 (서울: 예문서원, 1996), 116쪽 참조

44) 앞의 책, 117-8쪽 참조

45) 『孟子』, 「萬章 上」 참조

요(堯)는 몸소 사람들의 의표가 되어 백성을 감화시키고 천하를 교화한 덕치주의의 선행자이며, 천시(天時)·지리(地利)·인사(人事)를 조화시켜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농경을 영위케 한 인문세계의 개척자이다. 또 그는 천하의 공도에 따라 위민(爲民)·보민(保民)·양민(養民)에 힘써 치자(治者)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천하는 천하에서 가장 현능(賢能)한 자에게 맡겨 다스려야 한다는 치도(治道)의 이상을 숭선해서 시행한, 중국 정치사상사의 본류를 열어 놓은 제왕 중의 제왕이다. 후에 나온 유가(儒家)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인격의 승화자로 요(堯)를 꼽는 데는, 그가 현세에서 진실로 인간 중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sup>46)</sup>

다음은 순(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순(舜)은 요(堯)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덕성과 능력을 겸비하였고 그 진솔하고 성실한 인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천하를 교화시켰다. 순(舜)은 대효(大孝)다. 그는 성품이 우둔한 장남인 부친과 모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맞이한 포악한 계모 밑에서 성장했다. 또 이복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순(舜)을 여러 번 죽이려고까지 했다. 순(舜)이 이러한 역경에서도 효와 우애를 다했기 때문에, 그는 효로써 세상에 알려졌고 요(堯)에게 발탁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공직에 나아가 소임을 다하며, 어른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인도했다. 즉, 그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부간에 화합하고 군주와 나라에 충성하고 장유(長幼)의 질서를 지켰다는 것은, 후에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오륜(五倫)의 전형을 이미 세워서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舜)이 제왕의 시험무대에 올라 있을 때, “오륜을 아름답게 하라고 명하시자 오륜이 순조롭게 시행되었다”<sup>47)</sup>고 한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순(舜)은 즉위하자 문조(文祖: 堯의 묘)에 제사지내고 칠정(七政: 日月과五星 즉 曆法)을 말한다. 여기서五星은 金·木·水·火·土이다)을 바르게 하였으며, 제후들에게 신부(信符)를 주어 4년마다 내공(來貢)하게 하고, 천자

46) 김충열, 같은 책, 118쪽 참조

47) 「尙書」, 「虞書·舜典」, “愼微五典, 五典克從”

는 5년에 한 번 순수(巡狩)하도록 정했다. 또 천하의 도량형을 동일하게 하고, 관제와 교육 제도의 틀을 만들어 어진 사람을 발탁하였으며, 형벌과 제도를 만들어 악을 일삼는 자와 반역하는 자를 물리쳤다. 그는 우(禹)로 하여금 사공(司空: 건설을 담당한 직위), 기(棄)에게 후직(后稷: 농경을 담당한 직위), 설(契)에게 사도(司徒: 교육을 담당한 직위), 고요(皋陶)에게 사(士: 형벌을 담당한 직위), 수(垂)에게 공공(共工: 기물의 제작을 담당한 직위), 백(伯)에게 질종(秩宗: 종묘의 제사를 담당한 직위), 기(夔)에게 악관(樂官: 음악을 담당한 직위), 용(龍)에게 납신(納信: 여론의 수집을 담당한 직위)을 맡게 하여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게 했다. 또 순(舜)은 해악을 끼치던 자인 공공(共工)과 환두(驩兜)를 각각 유주(幽州)와 송산(崇山)으로 내쫓았고, 치수(治水)에 실패한 곤을 죽였으며, 삼묘족(三苗族)을 삼위(三危)로 몰아냈다. 그 이외에도 그는 천하사(天下事)를 공론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방의 문을 열어 놓고 어질고 뛰어난 인재를 등용했으며, 백성들의 이목(耳目)을 바르게 하여 천하에 막히고 가리어진 일이 없도록 하였다.<sup>48)</sup>

공자는 “순(舜)은 지혜로운 분이셨다. 순(舜)은 사람들의 일을 묻고 살펴서 여론에 귀를 기울였으며, 선(善)을 부양하고 악(惡)을 억제하셨다. 양극단을 들어서 그 중(中)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셨으니, 이것이 순(舜)의 위대한 면이다”<sup>49)</sup>라고 평했다. 따라서 중국 철학 사상사에서 볼 때 순(舜)은 인륜을 중시하는 풍조를 형성하고 도통의 단서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도통의 단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신과 치세와 온갖 변화에 대응하는 큰 근본으로서의 ‘중(中)’이라는 심법(心法)의 전수다. 이 심법(心法)이란 요(堯)에서 순(舜)으로, 순(舜)에서 다시 우(禹)에게 전해진 것이다. 순(舜)은 우(禹)에게 천하의 대권을 넘겨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의 역수(曆數)가 너에게 있어 너는 마침내 제위에 오른 것이다.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隱微)하기 때문에 오직 정일(精一)을 기해야만 그 중(中)을 잡을 수 있다. 황당무계한 말은 듣지 말고, 충분히 검토되지

48) 「尙書」, 「虞書·舜典, 大禹謨, 益稷」 참조

49) 「中庸」, 제 6장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얇은 계책은 쓰지 마라. 백성은 군왕을 목숨과 같이 여기니 군왕 된 자는 모름지기 백성을 사랑할 것이요, 군왕이 잘못하면 백성은 반역할 것이니 민심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백성은 군왕이 없다면 어찌 통일될 수 있으며, 군왕은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 나가겠는가? 오직 자신의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가지고 너의 그 제위를 지켜 너와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하라.”<sup>50)</sup> 이 훈계 중에서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궐중(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이 16자를 주희(朱熹)는 성인들이 전수한 도통의 심법(心法)이라고 했는데, 끝부분 ‘윤집궐중(允執厥中)’ 4자는 요(堯)가 순(舜)에게 전한 것이고, 그 앞의 12자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정유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은 요(堯)의 그 말을 실행하기 위하여 보충한 실천방법으로 순(舜)이 우(禹)에게 전한 것이다.<sup>51)</sup> 이상이 순(舜)의 인격과 공덕과 업적, 그리고 그의 도통 전수에 대한 서술이다. 이것을 중국 철학 사상사의 맥락에서 평가한다면, 순(舜)은 도통으로는 요(堯)의 도통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고, 내용으로는 특히 효(孝)를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인륜을 구현한 인물이며, 중국 철학의 중심 개념이 된 ‘중(中)’의 심법을 확정해서 후세에 가르침을 내린 선지선각자라 할 수 있다.<sup>52)</sup>

원시반본(原始返本)은 이렇게 천하가 태평하였던 요순시대(堯舜時代)로의 복귀(復歸)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원시반본(原始返本)은 과거·현재·미래의 직선적인 시간적 구조를 설정하여, 시간을 역행(逆行)하여 과거인 요순시대로의 회귀(回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만유(萬有)가 원시(原始)를 시점으로 출발하여 성장(生長)을 하고,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면 성숙을 위해 염장(斂藏) 운동을 하는데, 이 때 만유(萬有)는 근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자연법칙으로 설명하면, 식물은 봄과 여름에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결실을 맺고 모든 양분

50) 「尚書」, 「虞書·大禹謨」

“天之歷數在汝躬 汝終陟元后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無稽之言勿聽 弗詢之謀勿庸 可愛非君 加畏非民 衆非元后何戴 后非衆罔與守邦 欽哉 慎乃有位 敬修其可願”

51) 「中庸」, 「序」 참조

52) 김충열, 같은 책, 123쪽



이 다시 뿌리로 회귀한다. 이것이 자연에서의 원시반본운동(原始返本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과정을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에 비유해 볼 때, 성장(生長)을 위한 움직임을 선천운동(先天運動)이라고 한다면 성숙을 위한 염장(斂藏)의 움직임을 후천운동(後天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천개벽기(後天開闢期)의 우주는 성숙을 위해 다시 원시(原始)의 근본으로 돌아가게(返本)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원시반본(原始返本)은 직선적인 시간적 구조에서 시간을 역행(逆行)하여 과거로 회귀(回歸)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적 구조에서 점진적(漸進的)이고 진보적(進步的)으로 발전된 회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의 봄과 새해의 봄은 똑같은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과거로 역행(逆行)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환적 흐름에 따라, 지난해의 봄보다 새해의 봄이 진보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말한다.<sup>53)</sup> 결국 원시반본(原始返本)은 과거의 이상세계로의 순환적 복귀를 의미한다. 또 원시반본(原始返本)은 발전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개벽(開闢)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54)</sup>

## IV. 신앙체제의 형성방법

### 1. 내적 형성방법

#### 1) 도덕적 방법

대순사상에서 도덕적으로 신(信)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법을 잘 지키는 것,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질서를 잘 지키며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은 잘 지도하고 친구간에는 신의(信義)를 지키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는 우애하며 부부간에는 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음 자세와 태도로서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자신의 잘못을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는 것, 언덕(言德)을 잘 갖는

53) 김정태, 「後天開闢에 따른 未來觀—原始返本의 원리를 중심으로」(『대순회보』 제 22호, 1991년 3월 15일, 4면 참조)

54) 『전경』, 행록 4장 17절 참조

것,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등이 있는데, 이것은 남을 잘되게 하여 척을 짓지 말라는 것으로 귀결된다.<sup>55)</sup> 즉, 자신을 속이지 말고 타의 모범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인 실천 사항은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신인 무자기(無自欺)와 인간의 청정무구(淸淨無垢)한 양심(良心)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무자기(無自欺)와 양심(良心)은 그 표현이 다를 뿐,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상으로는 서로 일맥상통한다. 즉,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良心)을 속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한 몸을 주재(主宰)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사심(私心)이 있다. 양심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本心)을 말하며, 사심(私心)은 물욕(物慾)에 의하여 발동(發動)하는 욕심(慾心)을 말한다. 본래 인성(人性)의 본질(本質)은 양심(良心)인데 사심(私心)에 사로잡혀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언동(言動)을 감행(敢行)하게 된다. 그래서 사심(私心)을 버리고 양심(良心)인 천성(天性)을 되찾아야 한다. 인간의 모든 죄악(罪惡)의 근원(根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성(人性)의 본질(本質)인 정직(正直)과 진실(眞實)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해야 한다.<sup>56)</sup> 여기서 마음을 바로 갖지 않음은 언행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경』에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sup>57)</sup>라고 하였듯이, 이것은 말과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됬됨이를 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말과 행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근거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즉 올바른 언행을 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더라도 남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이 남들을 속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귀(鬼)와 신(神)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천지의 귀(鬼)와 신(神)은 인간세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sup>58)</sup> 또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있어 추기(樞機)이며 문호(門戶)이며 도로(道路)이다. 추기

55) 대순진리회 「훈회(訓誨)」와 「수칙(守則)」 참조

56) 「대순진리회요람」, 18-9쪽 참조

57) 「전경」, 교법 1장 11절

58) 「전경」, 공사 3장 40절 참조, “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

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라날라하며 도로를 오고가고 하는 것은 신(神)이다”<sup>59)</sup>라고 하였듯이, 귀신은 인간의 마음속을 출입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결국 인간은 본래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속이지 말라’, 또 ‘무자기(無自欺)는 도인(道人)의 옥조(玉條)니 양심(良心)을 속임과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言行)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 2) 신앙적 방법

대순사상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신(神)을 속이는 것이고, 신(神)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이는 것이라 하여 무자기(無自欺)를 강조하고 있다.<sup>60)</sup> 상제에 대한 신앙도 두말할 나위 없이 무자기에서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자기는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도(修道)의 근본정신이 된다. 수도(修道)는 심신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상제님을 영원히 받드는 정신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해야 한다.<sup>61)</sup> 신앙체제를 형성·강화하기 위해서 신앙의 대상인 상제를 받드는 일과 수도자 자신의 수도를 위해서 주문 봉송이 제시되고 있다.

상제를 받든다는 것은 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순간이라도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명(神明)은 인간이 품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그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한다. 『전경』에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 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고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시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

59) 『전경』,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60) 『대순지침』, 42쪽 참조

61) 『대순진리회요람』, 18쪽 참조

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 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sup>62)</sup>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이 선경(李善慶)의 아내가 상제에 대해 정성을 다하지 않고 불평을 하였다는 것은 상제에 대한 신앙심(信仰心)이 부족한 탓이라 할 수 있다. 신명은 그녀의 마음속을 명확히 꿰뚫어 보아 그녀에게 벌을 내린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자신은 속일 수 있을 지 몰라도 신명은 속일 수 없다는 증거다.

대순사상에서 내적(內的) 신앙심(信仰心)을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도 방법으로서 주문(呪文)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경』 내용 중 “전쟁사를 읽지 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sup>63)</sup>에 나타나 있듯이, 주문(呪文)은 신(神)과 인간 사이의 영적(靈的) 교류를 가능케 해주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사용하는 주문(呪文)에는 봉축주(奉祝呪)· 태을주(太乙呪)· 기도주(祈禱呪)· 진법주(眞法呪)· 칠성주(七星呪)· 운장주(雲長呪)· 이십팔수주(二十八宿呪)· 이십사절주(二十四節呪)· 도통주(道通呪)· 신장주(神將呪)· 해마주(解魔呪)· 신성주(神聖呪)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태을주(太乙呪)의 효험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태을주

62) 『전경』, 행록 1장 29절

63) 『전경』, 교법 2장 23절

(太乙呪)는 사람들이 이를 외우면 병마(病魔)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본주문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태을주를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라고 한다. 또한 태을주(太乙呪)는 흠치주(吡哆呪)라고도 하는데, ‘흠치(吡哆)’란 송아지가 모태(母胎) 밖으로 나오면서 우는 소리를 본뜬 것으로 신생(新生)의 의미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 송아지는 음성(陰性)이기 때문에 후천(後天)을 의미하기도 한다.<sup>64)</sup> 충남(忠南) 비인(庇仁) 출신인 김경훈(金京訥)이 오십년 공부로 태을주(太乙呪)를 신명(神明)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命)을 받았다.<sup>65)</sup> 김 경훈(金京訥)은 50년간의 도통공부(道通工夫)를 하면서 모든 주문들을 사용하여 보았지만 효험을 얻지 못하다가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인 ‘흠리치야도래 흠리함리 사바아’를 외우면서야 비로소 공부가 열렸다. 이 때 신명(神明)으로부터 계시(啓示)가 있었는데 이 주문의 첫머리에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을 붙여 외우고 이 주문(呪文)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었다.<sup>66)</sup> 그러나 이 주문(呪文)으로도 완전한 도통(道通)을 하지 못하였다. 삼제께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하실 때 김 경훈이 받은 태을주(太乙呪)의 첫머리에 ‘흠치흠치(吡哆吡哆)’를 첨가하여 인류를 구제하는 주문으로 사용하도록 하셨다고 전해진다.

삼제께서 화천(化天)하실 때 태을주를 외우셨으며, 화천하신 직후에 갑자기 뭉게 구름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하신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구천에 통했다는 사실에서 태을주의 신령(神靈)한 힘이 입증되기도 했다. 이렇게 태을주는 병마(病魔)를 쫓아 주고 우주의 힘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신비(神秘)한 주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삼제께서는 종도들에게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그것이 하늘에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오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sup>67)</sup>고 말씀하신 바 있다.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서는 신앙체제를 형성·강화할 수 있는 수도방법(修道方法)으로서 여러 가지의 법방(法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수행(實踐

64) 李康五, 『한국신흥종교총람』 (서울: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37쪽 참조

65) 『전경』, 교운 1장 20절 참조

66) 李康五,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67) 『전경』, 교운 1장 60절

修行)하고 있다. 법방(法方)은 도법(道法)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한 성스러운 방법으로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기초를 세우시고 도주(道主)와 도전(都典)께서 체계화했다. 수도(修道)의 법방(法方)으로는 기도(祈禱)·수련(修鍊)·공부(工夫) 등이 있다.<sup>68)</sup> 기도(祈禱)는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앙의 대상에게 기원하는 의식(儀式)으로 평일기도(平日祈禱)와 주일기도(主日祈禱)로 구분한다. 수련(修鍊)은 일정한 시간(時間)과 장소(場所)의 지정이 없이 태을위시(太乙爲始)로 주문(呪文) 전체를 일독(一讀)한 후에 태을주(太乙呪)를 계속 봉송(奉誦)한다.<sup>69)</sup> 시학(侍學) 및 시법공부(侍法工夫)는 도주(道主)께서 오 십년 공부로써 이룩한 광구천하(匡救天下)의 법방(法方)으로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법공부(眞法工夫)이다.<sup>70)</sup> 공부(工夫)의 수행 방법은 일정(一定)한 장소(場所)에서 지정(指定)된 방법과 시간에 따라 주문(呪文)을 송독(誦讀)하는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수련공부(修鍊工夫)에는 태을주(太乙呪), 시학(侍學) 및 시법공부(侍法工夫)에는 봉축주(奉祝呪), 태을주(太乙呪), 기도주(祈禱呪), 칠성주(七星呪), 운장주(雲長呪), 도통주(道通呪), 진법주(眞法呪)가 사용된다. 이렇게 도주께서 실행케 하신 공부(工夫)의 법방(法方)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실행되고 있으며, 공부(工夫)는 도인(道人)의 생명(生命)보다도 소중(所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상제에 대한 신앙체제를 형성·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도 거기엔 한계가 있다. 『전경』에 “우리 공부는 물 한 그릇이라도 연고 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이니 비록 부자와 형제간이라도 함부로 의지하지 말지다.”<sup>71)</sup>라고 하여, 수도와 공부는 남의 힘을 빌려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깊은 신앙심(信仰心)으로만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또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이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런 일은 불

68) 「대순진리회요람」, 18쪽 참조

69) 「대순진리회요람」, 18쪽 참조

70) 「전경」, 교운 2장 62절 참조

71) 「전경」, 교법 1장 7절

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sup>72)</sup>라고 하였고, “사람마다 그 닻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sup>73)</sup>라고 말씀하셨다. 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갖고 지극 정성을 다해 공부하면 반드시 신명이 인간을 보호해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명은 인간을 보호하지 않고 그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2. 외적 형성방법

### 1) 도덕적 방법

신앙체제를 형성하는 내적(內的) 방법이란 자기반성이나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려는 것과 같이 수도(修道) 자체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외적(外的) 방법이란 내적 방법을 통해 강화된 신앙심을 바탕으로 상제에 대한 신앙을 타인에게 전파하여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신앙심을 더욱 강화하려는 수도방법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수도방법으로서 포덕(布德)과 교화(教化)를 제시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포덕(布德)이란 ‘덕(德)을 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덕을 편다는 것은 곧 ‘도(道)를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포덕(布德)에 대해서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報恩)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며,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르게 이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4)</sup> 이것은 포덕(布德)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포덕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교화(教化)이다. 이 두 용어는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그 추구하는 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포덕이라고 하면 교화가 연상이 되고 반대로 교화라고 하면 포덕을 연

72) 「전경」, 교운 1장 63절

73) 「전경」, 교법 2장 17절

74) 「대순지침」, 19쪽 참조

상하게 된다. 즉, 포덕할 때 반드시 교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양자(兩者)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상제의 도(道)를 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언행(言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언행의 일치는 양심(良心)을 갖고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남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포덕과 교화를 함에 있어 말과 행동이 같지 않다면, 나 자신은 물론 수도자(修道者) 전체에게 해를 끼칠 것이고, 더 나아가 상제의 진리를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표출인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또 네 덕 내 탓이란 말이 있듯이 잘된 일은 그 공을 남에게 돌리고, 잘못된 일은 그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지 말고 내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나의 마음가짐과 언행을 바르게 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항상 남을 잘 되게 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순사상의 훈회(訓誨)와 수칙(守則)은 인간이 도덕적·사회적으로 준수해야 할 모든 사항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신앙적 방법

신앙체제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신비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의 교리는 신비적(神秘的)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논리적(論理的)으로나 합리적(合理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교리가 신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종교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신비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종교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심(信仰心)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요구된다. 신앙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경』 내용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순지침』에 “모든 도인들은 믿음의 근본이니 믿음을 바르게 하도록 항상 배우고 전경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라”<sup>75)</sup>고 했다. 이것은 수도자(修道者) 자신이 상제의 진리 중 난해한 점이



발견되면 전경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고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주변에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어렵다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상제에 대한 신앙심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테면 상제의 진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오류를 범했을 때, 흑세무민(惑世誣民)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도인(道人)들 전체가 비난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상제의 진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교화(教化)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상제의 진리가 무의미한 것으로 비취질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다. 교화(教化)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바른 수도(修道)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교화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바른 교화(教化)는 신앙심(信仰心)을 높이는 길잡이가 된다. 그래서 교화를 할 때는 임기응변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 전폭적으로 믿도록 하여야 한다.<sup>76)</sup> 또 교화를 할 때는 기본 교리를 상대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 중요하다.<sup>77)</sup> 즉,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의 합일성(合一性)을 밝혀 만상만유가 도(道)안에서 생성(生成) 존재(存在)하고 있는 진리를 확신케 하는 것을 말한다.<sup>78)</sup>

포덕(布德)은 상제께서 정(定)하여 놓으신 우주 만유(宇宙萬有)의 법칙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이를 『대순지침』에서는 미래의 지상선경세계(地上仙境世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는 일이며,<sup>79)</sup> 상제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하시고자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地上樂園)의 복(福)을 받게 하는 일이라고<sup>80)</sup>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이 포덕(布德)의 광의적(廣義的) 의미이자 본질적(本質的) 의미가 된다. 포덕의 협의적(狹義的) 의미이자 현실적(現實的) 의미로는 도(道)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道)의 참뜻을 알리고 입도(入道)케 함을 말한

75) 『대순지침』, 77쪽  
 76) 『대순지침』, 45쪽  
 77) 『대순지침』, 44쪽 참조  
 78) 『대순지침』, 45쪽 참조  
 79) 『대순지침』, 44쪽 참조  
 80) 『대순지침』, 21쪽 참조

다. 이에 비해 교화(教化)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선(善)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로 포덕(布德)을 위한 언어행위(言語行爲)이다. 교화는 아직 입도(入道)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道)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달해 주고, 이미 입도(入道)한 도인들에게는 신앙심(信仰心)을 자극(刺戟)하고 고양(高揚)시키기 위한 수단(手段)이나 방법(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지침』을 보면, 포덕(布德)이란 해원상생(解冤相生)·보은상생(報恩相生)의 양 원리(原理)인 대도(大道)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라 하였고<sup>81)</sup>, 교화(教化)를 할 때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이 남에게 착(慫)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라는 진리이니, 화합(和合)·단결(團結)·상부상조(相扶相助)를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sup>82)</sup>

포덕(布德)과 교화(教化)는 상제께서 대순(大巡)하신 진리(眞理)를 만천하에 알리는 역할을 말한다. 즉, 원시(原始)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佛)과 보살(菩薩)들이 회집(會集)하여 인류(人類)와神明계(神明界)의 겁역(劫厄)을 구천(九天)에 하소연하므로, 상제께서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개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삼계(三界)의 대권(大權)을 갖고 삼계를 개벽(開闢)하여 선경(仙境)을 열고 사멸(死滅)에 빠진 세계창생(世界蒼生)들을 건지려고 동방(東方)을 순회(巡廻)하셨다. 그러던 중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을 지내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참화(慘禍)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弱小民族)을 먼저 도와서 만고(萬古)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고 하신 것이다. 곧 상제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복록(福祿)을 얻어 불로불사(不老不死)하여 영원한 선경(仙境)의 낙(樂)을 이룰 것이다.<sup>83)</sup> 이것은 한마디로 상제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을 위해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하신 참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예나 지금이나 상제께서도 공사(公事)가 끝날 때마다 각처(各處)의 종도들에게 순회(巡廻)·연포(演布)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다.<sup>84)</sup>

포덕·교화는 화합(和合)·단결(團結)·상부상조(相扶相助)를 강화하고 실

81) 『대순지침』, 19쪽 참조

82) 『대순지침』, 27쪽 참조

83) 『전경』, 교운 1장 9절, 권지 1장 11절 참조

84) 『전경』, 교운 1장 64절 참조

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sup>85)</sup> 먼저 도인의 의식(意識)의 통합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포덕은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께서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키 위한 대인접촉(對人接觸)이라고 밝히고 있듯이,<sup>86)</sup> 포덕과 교화를 통해 개인(個人) 대 개인(個人), 개인(個人) 대 다수(多數)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도인(道人)은 일반인과 공감대(共感帶)를 형성할 수 있으며, 도인과 도인사이에는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단, 이러한 대인접촉은 『전경』을 바탕으로 상생(相生)을 위한 사상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으로 도(道)의 참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도인들의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에만 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학교(學校)와 의료사업(醫療事業)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奉仕活動)은 사회와의 연대감(連帶感)을 형성하고 신앙심을(信仰心)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sup>87)</sup>

## V. 결론

신이란 말과 행동의 일치(一致)를 의미하며, 말과 행동의 일치(一致)는 양심(良心)과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無自欺)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믿음(信念)은 신념(信念)과 신앙(信仰)의 두 가지 의미로 분류되는데, 신념은 비종교적 언어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사상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신앙은 종교적 언어로서 ‘종교를 믿는다’ 즉, 신(神)의 존재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외경(畏敬)의 감정을 갖고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 믿음(信念)은 도덕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도덕적 의미로서 양심(良心)과 무자기(無自

85) 『대순지침』, 27쪽 참조

86) 『대순지침』, 21쪽 참조

87) 拙稿, 「道通眞境의 實踐的 背景」, 『大巡思想論叢』 제 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참조

欺)를 근본으로 유가(儒家)의 윤리덕목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실천하는 것이며, 신앙적 의미로는 양심과 무자기를 근본으로 상제의 진리를 믿고 실천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대순사상의 신앙체제는 청원형(請願型)·구도형(求道型)·개벽형(開闢型)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청원형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소망을 신(神)에게 비는 일종의 기복신앙(祈福信仰)을 말한다. 상제 출현 이전에는 인간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온 신(神)에게 기원하는 종교의식을 행했는데, 상제 출현 이후 즉, 상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상제께 소망하는 바를 인간이 직접 기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의 대상이 막연한 전통적인 신(神)으로부터 우주의 삼라만상을 주재하시는 상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구도형(求道型)은 구도자(求道者)가 직접 진실한 자아를 추구하고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 엄격한 도(道)의 규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청원형(請願型)과는 달리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인 문제는 물론 도통(道通)을 의미한다. 개벽형(開闢型)은 요순시대(堯舜時代)와 같은 인류의 이상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우주적 비전에 그 관심이 집중된다. 그 이상세계는 현존하는 인간과 사회 조건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세계로서, 원한과 상극(相克)이 존재하지 않는 상생(相生)의 세계인 지상선경세계를 말한다. 이러한 세계는 개벽을 통해 가능하다. 개벽(開闢)이란 천·지·인 삼계를 창조(創造)와 개조(改造) 그리고 조화(調化)함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일컬어 개벽공사(開闢公事) 또는 삼계공사(三界公事)라고 한다. 이 공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대순사상의 신앙체제의 형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형성방법으로는 내적(內的) 방법으로서 양심과 무자기를 바탕으로 한 수도방법인 기도(祈禱)·수련(修鍊)·공부(工夫), 외적(外的) 방법으로서 포덕(布德)과 교화(教化)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수도방법은 수도자(修道者) 자신의 신앙심(信仰心)을 고취시키고, 도(道)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제의 진리를 널리 알려 선경(仙境)의 세계를 열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대순회보』 제 22호  
『大巡思想論叢』 제 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論語』 『孟子』 『中庸』 『尙書』  
『說文』  
『儒敎大事典』 (서울: 박영사, 1990)  
임석진 外, 『철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靑史,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4권 (서울: 웅진출판, 1997)  
김충열, 『중국철학사 1』 (서울: 예문서원, 1996)  
岸本英夫(박인재 옮김), 『종교학』 (서울: 김영사, 1994)  
尹以欽, 『韓國宗教研究』 卷1(서울: 집문당, 1991)  
李康五, 『한국신흥종교총람』 (서울: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張秉吉 教授 隱退紀念論叢 刊行委員會, 『韓國宗教의 理解』 (서울: 집문당, 1985)